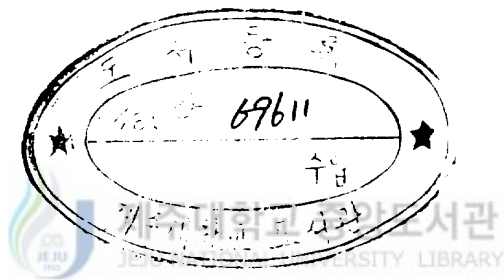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父母~子女間 意思疏通類型이 兒童의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鄭 喜 萬

1992年 8月

父母—子女間 意思疏通類型이 兒童의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은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鄭喜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明奎 

審査委員 李淳熙 

審査委員 許鐵洙 

〈초록〉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철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정 희 만

본 연구는 가족체제내의 의사소통유형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보려 하였다.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와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제주시내 4개 국민학교 6학년 남·여 427명에게 배부·회수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유의있는 차를 보여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부정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2. 父·母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동들은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父보다 母와 더 관계함을 보여 주고 있다.

3. 父의 학력수준은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母의 학력수준은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며, 父·母의 학력수준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는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만이 의의있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는 의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 父인 경우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이, 母인 경우 긍정성, 자발성, 수용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주 변인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 父인 경우 불평 불만, 불성실성이, 母인 경우 불평 불만, 불성실성, 권위지향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가족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분명한 의사소통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가족체제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目 次

초  록 .....	i
I. 緒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研究問題 .....	2
3. 用語의 定義 .....	3
4. 研究의 制限點 .....	3
II. 理論的 背景 .....	4
1. 意思疏通 .....	4
2. 自我概念 .....	16
3. 先行研究의 考察 .....	21
III. 研究方法 .....	24
1. 標集對象 .....	24
2. 測定道具 .....	24
3. 資料處理 方法 .....	26
IV. 結果 및 解釋 .....	27
V. 要約 및 結論 .....	47
1. 要 約 .....	47
2. 結 論 .....	50
* 參考文獻 .....	53
* 英文秒錄 .....	61
* 附  錄 .....	65

## 表 目 次

〈표 III-1〉 표집대상 아동의 학교별, 성별 상황 .....	24
〈표 III-2〉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문항 .....	25
〈표 III-3〉 자아개념 검사 문항 .....	26
〈표 IV-1〉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	27
〈표 IV-2〉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	28
〈표 IV-3〉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	29
〈표 IV-4〉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차이 .....	30
〈표 IV-5〉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	31
〈표 IV-6〉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 .....	32
〈표 IV-7〉父의 학력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의 별량 분석 .....	33
〈표 IV-8〉父의 학력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점수의 별량 분석 .....	33
〈표 IV-9〉母의 학력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의 별량 분석 .....	34
〈표 IV-10〉母의 학력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점수의 별량 분석 .....	35
〈표 IV-11〉성별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차이 .....	36
〈표 IV-12〉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 .....	37
〈표 IV-13〉가족형태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차이 .....	38
〈표 IV-14〉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 .....	39
〈표 IV-15〉父·母와의 대화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별량 분석 .....	39
〈표 IV-16〉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 상관 .....	40
〈표 IV-17〉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 상관 .....	41
〈표 IV-18〉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 분석 .....	42
〈표 IV-19〉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 분석 .....	43
〈표 IV-20〉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 분석 .....	44
〈표 IV-21〉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 분석 .....	4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는 한 의사소통을 한다. 만일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주변으로부터의 위험을 알 수 없고, 주위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인간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부모-자녀 사이에는 바르고 원만한 의사소통은 필수조건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바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원만하고 성공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세철(1982)은 동양과 서양의 의사소통을 비교하여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연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정한택(1982)·차재호(1983)·이동식(1981) 등도 한국인의 성격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의사소통의 유형을 연구,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은 가족체제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Satir, Okun, Rappaport등(1980)은 가족체제내의 의사소통은 가족체제내에서 개인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의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분명한 의사소통선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기능적 가족원들은 서로 꾀방하고, 투사하고, 거의 관계를 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의미없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의사소통 때문에 가족원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이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Jones (1970)가 가족치료를 의뢰해 온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정도 해당하는 부부에게서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는 일례이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는 부모-자녀간, 교사-학생간, 의사소통의 내용과 그 효과를 파악, 분석하는 일에 관심이 매우 적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문제의 원인도 거시적이고도 추상적인 접근으로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도 사실이다. 자아개념 역시 이를 독립변인으로 한 “자아개념과 성취”, “자아개념과 편견” 등 관련성 및 영향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체제내의 의사소통유형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수준과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관계를 밝혀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2. 연구 문제

가족체제내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본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父와 자녀간, 母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부모의 학력, 아동의 성별,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
- 4) 父·母와의 대화 형태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가?
- 5) 父·母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

### 3. 용어의 정의

**기능적 의사소통** : 이것은 다른 가족원들에게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 등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기있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을 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식별있는 기대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행위, 공격적이고 세력 중심적인 행위, 불평불만이 많고 비관적이고 비관적이며 비융통적인 행위,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 분명하지 않고 모순되게 말하는 것, 상황에 맞지 않고 비효과적인 언행, 애매모호하고 혼돈된 언행,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언행 등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 자아개념은 자신의 자신에 관해 특징 지우는 학급, 가족, 성취, 정서, 능력, 신체, 사회에 대해 갖는 정신작용평가 또는 승인에 의해 나타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일관된 인정, 불인정과 그리고 중요성 정도를 인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얻어진 긍정, 부정의 개념을 말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제주시내 4개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련성 탐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

영어의 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공유) 혹은 Communicare(공동체, 공통성을 이룩한다. 혹은 나누어 갖는다)라는 Com= together의 뜻을 갖는다. 즉 공동의 상징이 성립함을 의미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유형주, 1984).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의 거래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전달”, “의사소통” 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이광제의 3인, 1975).

의사소통을 보는 관점은 여러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Cooley(1956)는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발달시키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신의 모든 상징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보존시키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Wright(1975)는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하였으며 Satir(1972)는 의사소통이란 “상호작용”이나 “상호반향작용”(transa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를 교환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온갖 상징과 행동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김만두 역, 1977).

Myers(1973)가 의사소통에 관하여 정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다.

(2) 의사소통은 자극과 반응, 수신자와 송신자, 메시지, 기호화과정, 기호해독과정, 환류(feedback), 자각(self awareness), 자기표현 등으로 구성된 인간관계의

매개체이다.

(3) 의사소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계속된다.

(4)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받는다.

(5)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사상, 느낌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6)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된다.

이상의 견해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사회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표현하며, 사회적 욕구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Schramm (1971)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시키고(to share knowledge of environment) 새로운 사회성원을 교육시키며(to socialize new members), 즐거움을 주고(to entertain),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는다(to gain consensus)는 네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차배근, 1983).

고영복(1974)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달자는 전달하므로써 자신의 내적 긴장이 완화되며 경험의 공유에 의해 소속감을 획득하고 상대방의 관계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의해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접촉에 의해 정서적 안정 또는 만족을 얻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Gross (1980)는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서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이 각자의

생활이나 협력적인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의사소통이 가정관리의 중요한 관심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조혜정, 1983).

Thomas(1977)는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자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며 의사소통의 목적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고 수신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수신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변화하도록 설득하는데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기능이란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협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가정이 원만한 가정으로 성립하는데 중추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여러분야(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때부터 의사소통 이론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Jackson(1963), Haley(1976), Satir(1972), Watzlawick(1974), Weakland(1956), Bateson(1956) 등은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의 이론은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상호영향력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가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치료에 관심을 두고 역설적 의사소통, 가족의 균형유지성 기제(Homeostasis Mechanism), 이중구조(Double-bind) Meta message 등의 개념을 개발하였다(송성자, 1985). 이러한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은 Palo-Alto 의료 연구기금 연구사업(Medical Reserch Found ation project)에 의해서 연구된 것으로 가족연구와 가족치료에 관한 접근법이다.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의 기본개념은 Bateson(1956)이 발전시켰고, Jackson(1963), Satir(1972), Haley(1976)는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이것은 가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 기본적 치료의 초점을 둔다. 가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에 관한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된 치료 목표는 행동 변화이다. Janzen과 Harris(1980)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에 의하면 모든 행동은 의사전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몇개의 다른 수준(상하관계, 대등한 관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이란 의사전달 과정을 통해 주위환경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체계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을 기능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의사소통 체계로 보고 있다. 가족들은 의사소통 매개체를 통하여 규칙, 역할, 관계 등을 규정하므로 가족은 가족규칙을 통제하는 체계, 상호작용적인 체계, 가족기능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송성자, 1985). Jackson(1963)은 의사소통을 행동변화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았으며 의사소통의 인지측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가족 내에서 작용하는 규칙을 명확히 하며, 새로운 균형 유지성을 만드는데 의사소통 치료 목표를 두었다(송성자, 1985). Satir(1972)는 의사소통은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어떠하든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특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 치료적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의 견해중 성숙개념과 자기 존중은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서 사람은 자기 존중의 감정없이 성숙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가족체계내의 의사소통은 가족체계내에서 개인들의 자기존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송성자, 1985). Haley(1963)는 상호관계의 세력 싸움에서 사용되는 전략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규정되고 의사소통은 다른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ley는 심리 내면적인 것보다 의사소통으로부터 증상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Jackson, Satir, Haley 등의 공통된 핵심개념은 상호관계 속에서 의사소통과 메타의사소통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규칙, 역동적인 세력, 협상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 개념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체계내의 하위체계로서의 개인은 자기자신과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가들은 대인관계에서 상호관계에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행동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행위가 변화하며 또한 서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향상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송성자, 1985). 이처럼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결정적 측면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Watzlawick, Bavelas, Jackson (1967) 등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행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그들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의사소통의 5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 impossibility of no communication)

(2)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양차원을 가지고 있다. (The content and relationship levels of communication)

(3) 의사소통은 계속적인 것이다. (The punctuation of the sequence of events)

(4)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Digital and analogic communication)

(5)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관련 성격은 대칭적이거나 보충적이다. (Symmetrical and complementary interaction)

이와 같은 원칙 아래서 의사소통의 내용을 분석할 때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Glick과 Kessler(1980)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애정, 감정이입, 상호간의 지지에 대한 표현, 성적 만족과 불만족,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 활동의 공유,

역할의 융통성, 경쟁, 세력의 균형, 부부사이 갈등, 갈등해결방법, 가족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의 변화는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하여 행동을 배우고 발전하고 수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식별하여 예측할 수 있을 때 이 관계는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해, 식별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불일치하게 될 때 이들 관계는 문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면 Bernstein (1972)은 가정에서 언어표현 양식을 두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제한된 어법”(restricted code)과 “세련된 어법”(elaborated code)이라 불렀다. Bernstein은 노동계층에서는 제한된 어법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중산층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한된 어법과 세련된 어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중산층 아동은 인지의 대상을 추상화하고, 사상 사이의 합리적 질서를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구성 역시 논리적인 경향이 있으나 노동계층의 아동은 인지의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로서 추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간의 필연적 관계를 보는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제한된 어법은 개념적 사고와 낮은 수준의 인과적 사고를 하기에만 적합하며 [나] 혹은 [너]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서 사용되며, 어휘적 분화가 많지 않고 話者의 의도가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세련된 어법은 사물사이의 논리적 관련이나 추상적 사고를 하기에 적합한 어법으로서 감정의 세세한ニュ앙스까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Bernstein (1972)은 인간관계 지향적 대화체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어휘적으로 정교화된 타인의 의도, 동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으로 인해 어린이의 발달해 가는 자아가 분화된다고 한다. 반면 위치지향적 대화 체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아동이 자기 위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승하거나 학습하게 되어 인간 관계 지향적 대화 체계를 사용할 때의 개별화된 역할과는 구별되는 공동화된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그 결과 개인차에 대한 언어적 정교함이 용이치 않게 되어 타인들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탐구를 용이치 않게 한다. Bernstein은 위의 이론에 근거하여 가정에서의 언어적 형태를 명령적, 위치지향적, 인간관계지향적 대화형태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Bernstein의 대화 형태의 분류는 언어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어계획(verbal planning)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 구조적 접근이라고 본다.

박화엽(1972)은 부모의 언어형태를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로 분류하여 부모-아동 관계에서 부모의 언어 형태가 아동의 인지 및 정의적 영역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Chaffee(1973)는 가정의 의사전달 형태를 개념성 지향(Concept-Oriented)과 사회성 지향(Socio-Oriented)으로 분류하였는데, 개념지향성 의사전달 형태란 가정 구성원간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서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異見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며 서로 대립되는 토의 논점에 대해서는 양 측면에서 고찰하여 타인의 견해 표명에 異見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의사전달 형태를 말한다. 또한 사회지향성 의사 전달 형태란 가족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서로 대립되는 논점에 대해서는 양보, 언급회피, 자기억제 등을 강조하는 의사전달 형태를 말한다.

오세철(1982) 등은 동양과 서양의 의사소통을 비교하였는데 서양인은 핵가족의 가족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현재의 실생활에 중점을 두어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중을 두는 반면, 동양인은 실질적인 확대가족



구조 속에서 자기자신보다는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계층서열에 맞는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양인은 침묵에 가치를 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부영(1983)은 한국인의 성격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 분석하였고 윤태림(1966)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8개 유형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한택(1982)·차재호(1983)·이동식(1981) 등은 한국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 제시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나친 감수성 — 감정 우위
- (2) 권위주의적 — 열등의식
- (3) 과거집착 — 보수성
- (4) 체면중심 — 형식주의
- (5) 비언어적 의사전달
- (6) 의존성

이와 같이 한국인의 성격적 특성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성질을 많이 띄고 있어서 가족관계와 대인 관계에서 문제의 소질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Haley(1980)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자기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 (2) 혼돈되고 불명확한 언행
- (3) 분명한 이유도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언행
- (4) 공격적인 언행
- (5) 예의에 어긋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언행
- (6) 권위에 복종적인 언행

(7) 다투는 식의 언행 등이다.

Watzlawick, Bavelas, Jackson(1967) 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발생하게 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거절(Rejection of Communication)로서 의사소통에 흥미가 없으며, 무뚝뚝하며, 상대를 긴장시키고, 침묵을 지키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한다. 그러나 관계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의사소통의 과잉수락(Acceptance of Communication)으로서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 감정, 신념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끝까지 알고자 하며, 상대방이 일단 반응을 시작하면 점점 멈추기가 힘들게 된다.

셋째, 무의미한 의사소통(Disqualification of Communication)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효과없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한다. 즉, 자기모순 반박, 일관성이 없는 것, 자주 주제를 바꾸는 것,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 미완성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 쉽게 오해하는 것,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 등이다.

넷째, 증상적(症狀的)인 의사소통(The Symptom of Communication)으로서 자신의 결함, 무능함, 불가능한 것을 정당하게 의사소통하려는 것이다. 즉 자는 척하고, 못들은 척하고, 못본 척하고, 술취한 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Gordon(1970)은 부모 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사전달의 장애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명령, 지시하기 : 이 범주의 메시지는 자녀의 감정, 욕구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알리며, 자녀는 부모가 느끼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좇아야 한다.

“네가 목마른 것은 상관 없어. 용서할 때까지는 거기 앉아 있어.”

“울음을 그쳐, 너는 아기가 아니야.”

“오늘밤 학습계획을 세워서, 내일 나한테 가져와.”

(2) 경고, 위협하기: 이 범주의 메시지는 명령, 지시 메시지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이다.

“울음을 그쳐,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 그 댓가를 주겠어.”

또한 이 메시지는 자녀의 요구나 희망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복종하게 한다.

“만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일러 바칠꺼야.”

(3) 교화, 설교, 의무부과하기: 이 범주의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외부의 권위에 따르도록 요구하며, 의무 또는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메시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다.

“너 자신과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돼.”

“너는 반드시 올바른 일을 해야 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려.”

(4) 충고, 해결책이나 방안 제시: 이 범주의 메시지는 부모가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이 메시지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며, 갈등적인 상황에서 그 해답을 외부의 ‘권위자’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나는 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다.”

(5) 판단, 비판, 의견 불일치, 비난하기: 이 메시지는 다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보다 더 많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어리석고, 부적당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고, 나쁘다고 느끼게 된다. 자녀들의 자아상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인 부모와 교사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부정적 평가의 진술은 학생의 자존심을 조금씩 침식해 간다.

(6) 욕설, 상투적인 말, 조롱하기 : 이러한 메시지는 부정적 평가와 비판의 형태로써 자녀의 자아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7) 해석, 분석, 진단하기 : 이러한 메시지는 부모가 자녀에 관해 “다 알고 있다”고, 즉,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8) 안심시킴, 동정, 위로하기 : 부모는 자녀들의 고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 불쾌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려 한다. 이때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하는 메시지는, 부모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일이 잘 될꺼야. 내일이면 좀 기분이 나아질거야.”

(9) 질문, 조사, 심문, 반대하기 : 자녀들은 종종 부모들의 질문에 위협을 느끼는데, 특히 부모가 왜 자기에게 질문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위협을 느끼게 된다. 자녀들은 질문을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기도, 또 그들을 몹시 불리한 입장에 빠뜨리거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얼마나 오래 공부했니? 단 한시간?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10) 움츠림, 주의 전환하기 : 이런 메시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그를 거부한다고 자녀들에게 전달한다. 자녀들은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해지고 열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담, 놀림, 빈정거림으로 대하게 되면 그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Gordon (1970)의 이와 같은 의사전달의 장애유형 외에도 의사전달을 촉진하는 유형으로서 ① 수동적 경청(침묵), ② 인정반응, ③ 대화의 문을 열게 하는 메시지,

④ 능동적 경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송성자(1985)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는데 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에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 등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 활기있고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형태,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을 잘하는 수용적인 의사소통형태, 그리고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식별있는 기대를 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권위지향적 의사소통유형으로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관계적, 냉소적, 파괴적, 공격적, 세력 중심적 행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열등감, 무력감, 개인의 무의미 때문에 권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소심지향적 의사소통유형으로서,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경향이 있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비사교적인 성향이 있다.

셋째, 불성실 지향적 의사소통유형으로서, 못 들은 척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은 형식적이며 체면을 중요시 하는 유형이다.

넷째, 희생지향적 의사소통유형으로서, 가문을 중요시하며, 남존여비사상, 서열의식, 집안의 화목을 위한 개인의 희생 등 전통적인 가치의식들은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소통유형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분류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들은 Jackson(1963), Satir(1972), Haley(1976), Watzlawick

(1974), Gordon(1970), 송성자(1985) 등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솔직한 의사소통, 자발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의사소통, 수용적인 의사소통으로 구분 분류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간의 의사교환에 있어서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권위 지향적 의사소통, 불평 불만 지향적 의사소통, 불성실 지향적 의사소통, 평가 지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 분류하고자 한다.

## 2. 자아 개념

### 1) 자아개념의 정의

개인의 다른 성격 특성들과 같이 그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아개념은 자아(ego) 또는 자기(self)로 표시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Symonds(1951)는 한 개인이 자기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치지우고 있는가, 자기자신을 향상시키고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정의하였다.

Raimy(1948)는 자아개념은 현재 및 과거의 자아 관찰의 결과 일어난 조직 또는 비조직간의 지각적 대상이며, 인간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Rogers(1951)는 자아와 자아개념 또는 자아구조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자아개념이란 감지되어질 수 있는 자기에 관한 지각이 조직된 형태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은 자기의 특징, 능력에 대한 지각, 타인 또는 환경과 관계

지는 자아의 지각 또는 의미 물체와 경험에 연합된 것으로 지각된 가치의 정도,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목표나 이상 등의 요소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가 느껴서 알 수 있는 자기에 관계되는 모든 지각의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아(Self)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Byrne (1974) 역시 Rogers (1951)와 유사하게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행동, 능력, 신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에 관련지어 지니고 있는 태도, 판단 등 가치의 전체 집합체로서, 요컨대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라라고 정의하고 이 자아개념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며 태도나 동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정원식(1868)은 자아개념을 개인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개념, 가치관, 목적, 이상 등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최정훈(1972)은 자아개념이란 자아에 대한 모든 지각이며, 이것은 자기존재에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아개념의 구성 요인을 William James (1910)는 자아를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로 구분하였다.

Hurlock (1974)은 자아개념을 기본적 자아개념, 감정적 자아 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그리고 이상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또 이와는 달리 자아개념은 지각적 성분, 개념적 성분, 그리고 태도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부딪히는 환경과 대상의 지각에서 상이한 자아개념이 형성 발달되며 또한 그것을 주로 자신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판단이나 타인의 자신에 대한 태도나 견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주된 요인은 바로 인간이며 이 인적

요인 중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부모의 사랑과 보호의 속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녀는 자신과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self-image)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Manis (1958)는 자녀의 자아관은 부모가 그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 주느냐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Davidson과 Lang (1960), Shaw와 Dutton (1965) 등도 어린이의 행동을 그에게 의미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함수관계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Wylie (1979)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형 혹은 강화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Coopersmity (1967)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있는 개체로서 자신을 지각하게 하는 세가지 조건으로서 부모의 인정, 존중하는 대우,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 배경과 구성요소

어린이가 가정을 벗어나 학교를 다니게 되는 단계는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존관계는 어린이가 학교라는 세계에 들어간 뒤에는 달라진다. 학교에 들어간 뒤의 어린이는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행동을 부모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독립성으로 어린이는 자아에 대한 탐색이 증가되고, 자기를 더 강조하게 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자기 평가(self-evaluations)와 자기보상(self-rewards)도 많아지게 된다.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자기 지시적 언어(self-directed speech)를 통하여 방향 지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내면적 언어(inner speech)



는 어린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방향지우게 된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형상은 이러한 내면적 언어는 자기를 비판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를 칭찬한 것일 수도 있다(Piaget, 1926, Kohlberg, Yeager, & Hjertholm, 1968). 이러한 자기 지시적 언어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목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언어는 점점 내면화되게 되는데 내면적인 언어와 자기언어(self-referent language)의 역할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자아개념이 높은 어린이는 긍정적인 자기 언어로서 자신을 강화하지만, 자아개념이 낮은 어린이는 이것이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자기 언어로서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이와 같은 가치관 형성에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의 학습이다. 어린이는 자기 이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이 그의 자아개념을 나타내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지표가 된다(Boshier, 1968). 어린이가 자기 이름을 좋아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자기 이름을 싫어한다면, 자기 자신을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외에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어린이야” “나는 나쁜 아이야” 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어린이들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나중에 배운다. 어린이는 모방 학습이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모방은 간단한 운동 학습에서부터 가치 및 지적 기능의 학습에 이르기까지 매우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Felker & Milhollan, 1970). 이 모방의 힘은 자아존중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부모는 어린이에게 무엇을 행하기도 하고 대면하지만 이때 어린이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정과 언어적 태도를 관찰하며 어린이는 모방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모방에 의한 학습은 어린이 주위의 중요한 사람이 어린이의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인물과의 관계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은 자아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어린이가 자아개념의 내면적 체제와 이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한 기제를 발전시키게 되면, 어린이는 새로운 사람과 의향에 신뢰를 가지고 접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가 긍정적인 자아평가 및 자아존중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중요한 사람이 확대는 그가 의존할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활에서 보호성이 증가하게 된다. 어린이는 안전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어머니에게 의존하지만, 놀이친구나 다른 성인들의 강화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자아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기 강화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는 소속감(belonging; Erikson, 1963), 능력감(competence; Diggory, 1966), 그리고 가치감(feeling worthwhile; Jersild, 1963)이 발달된 결과로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1) 자신이 집단의 한 부분으로 느끼거나 집단에서 소외된 느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 2)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느낌. 3) 자기 자신이 가치롭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 이 세 영역은 자아개념의 필수적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세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의 발달이 지연되면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이 결손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Super(1972)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명료성(clarity), 추상성(abstraction), 세련성(refinent), 확실성(certainty), 안전성(stability) 및 현실감(rality)의 7요소를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Fitts(1972)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를 구분하여 내적 자아는 총자아 긍정(total positive self), 자기평가(self-criticism), 자아동일성(self-identity), 자아수용(self-satisfaction), 자아행동(self-behavior)을 외적 자아로는 성격적 자아(personal self), 사회적 자아(social self)의 10개 영역을 선정하여 자아개념의 구성 요소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의 유명한 테네시 자아개념 척도(Tennessee

self-concept scale)를 제작하였다. 또한 정원식은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및 사회적 자아를 들고 있다.

Piers와 Harris(1964)는 아동의 자아개념 구성요소를 행동, 지능 및 학교, 지위, 신체적 외모와 특징, 불안, 인기, 행복과 만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Shavelson 외(1976)은 자아개념을 위계적 구조로 구성하여 가장 하위 차원에 서는 구체적이나 차츰 상위 차원에 이르면 일반화된 자아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 자아개념은 완전히 한 개인이 자기에 대하여 갖는 일반화된 자아, 평가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학업적 자아개념과 비학업적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업적 자아개념은 그 하위 수준으로 각 교과목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지며, 비학업적 자아개념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자아개념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사회적 자아개념은 그 하위 수준에 동료에 관한 자아개념과 중요한 타인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정서적 자아개념은 다시 특정 정서적 상태에서 다른 자아개념으로 구분되며 신체적 자아개념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과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정의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회 심리학적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즉 자아를 과정으로서가 아닌 대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자아개념이란 각 개인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의 총합으로 보고 Shavelson외(1976)가 주장한 자아개념 모형에 준하여 정서적 자아개념·신체적 자아개념·학업적 자아개념·사회적 자아개념 등으로 분류 제작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많은 결정 요인 중 특별히 가족체제내의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자아개념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자아개념에서 부모와 아동간

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다.

Mistry (1960)는 부모의 정서적인 보호가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의 분위기가 온화하고 가족간에 서로 존경하면 아동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현실적인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고, Richards (1976)는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와의 초기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수용 또는 거부하는 자신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임희선(1988)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소극적 거부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모든 자아개념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반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Mccandless (1967)는 언어발달의 시작이 곧 자아개념의 시작이며 언어의 역할이 이러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elker와 Stanwyck (1971), Felker와 Thomas (1971)도 긍정적인 자기언어(Self-language)와 자아개념은 또한 자기 및 타인수용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을 학습했다면 그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반화 되기 쉽다는 것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분명한 의사소통선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이드백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역기능적 가족원들은 서로 횡방하고, 무시하고, 거의 관계를 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의미없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가족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언어는 자아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중핵적인 요인이다. Mccandless (1967)는 생후 18개월에서 만 2세에 이르는 시기에 언어의 발달과 함께 자아개념도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개념”이란 말은 많은 변인들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환경속의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Me)라는 특성들의 체제에 대하여 “자아”(Self) 또는 나(Me)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역할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사물을 일반화하고 추상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역할 외에 자아개념에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Kohlberg와 Yeager과 Hiertholm(1968)은 개인의 내적으로 자기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발전적 과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언어적인 자기 보상(Self-rewards)과 같은 자신을 보상하는 과정은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언어에 의해서 자기를 보상하는 일은 자아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다. 개인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언어적인 표현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술한 문장이나 단어들이나 단어인 것이다. Marston(1965)은 이와 같이 내면적 언어(internal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이 내면적인 자아개념과 외형적인 활동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긍정적인 자기언어(Positive self-language)는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되었다(Felker & Thomas, 1971). 어린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선택한 문장들은 일반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고(felker & Stanwyck, 1971) 이러한 관계는 성취(Performance)와의 관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Felker, 1972).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리적 과정변인 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표집 대상

표집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국민학교 6학년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427부를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남·여 아동표집 상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표집대상 아동의 학교별 성별 상황

성별 학교별	A 교	B 교	C 교	D 교	계
남	62	60	58	40	220
여	57	61	54	35	207
계	119	121	112	75	427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와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측정도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Jackson (1963), Satir (1972), Haley (1976), Watzlawick (1974), Gordon (1970), 송성자 (1985) 등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설정한 다음 신뢰도 검증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작 활용하였으며, 평가방법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문항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문항

의사소통 유형	의 사 소 통 내 용	문 항 수	문항번호
기능적 의사소통	솔 직 한 의 사 소 통	5	1- 5
	자 발 적 인 의 사 소 통	5	6-10
	긍 정 적 인 의 사 소 통	5	11-15
	수 용 적 인 의 사 소 통	5	16-20
역기능적 의사소통	권 의 지 향 적 의 사 소 통	5	21-25
	불 평 불 만 지 향 적 의 사 소 통	5	26-30
	불 성 실 지 향 적 의 사 소 통	5	31-35
	평 가 지 향 적 의 사 소 통	5	36-40

## 2) 자아개념 검사 측정 도구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원식(1972), 김호권 외(1979), 박경숙(1976), Song(1982), Piers와 Harris(1964) 등을 참조하여 Shavelson 외(1976)가 주장한 자아개념의 모형에 준하여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학업적(능력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문항구성 및 신뢰도 검증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작 활용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여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으

로 점수화 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문항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자아개념 검사 문항

자 아 개 념 구 분	문 항 수	문 항 번 호
정 서 적 자 아 개 념	20	1-20
신 체 적 자 아 개 념	20	21-40
학 업 적 자 아 개 념	20	41-60
사 회 적 자 아 개 념	20	61-80

###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SPSS를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은 평균(M), 표준편차(SD), t검증, Scheffe검증 그리고 상호상관, 회귀분석 방법이다.





## IV. 결과 및 해석

앞에서 진술한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분석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

#### 1) 아버지·어머니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자아개념

##### (1)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상·하)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 차이

자아개념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			하			t
				N	M	SD	N	M	SD	
정서	솔자 자 금 수	직 발 정 용	성 성 성 성	165	65.28	10.31	143	59.69	10.11	4.80**
				143	66.78	10.59	126	58.02	9.29	7.15**
				151	66.36	10.87	122	59.43	9.70	5.49**
				163	66.61	10.47	129	59.21	10.06	6.10**
신체	솔자 자 금 수	직 발 정 용	성 성 성 성	165	70.11	11.19	143	63.48	11.65	5.08**
				143	71.28	11.12	126	62.87	11.24	6.03**
				151	71.32	11.44	122	62.97	11.24	6.04**
				163	71.24	11.42	129	63.72	12.36	5.38**
학업	솔자 자 금 수	직 발 정 용	성 성 성 성	165	68.15	11.98	143	61.26	12.51	4.93**
				143	69.71	11.72	126	59.63	12.00	6.96**
				151	68.99	12.93	122	60.75	12.20	5.36**
				163	68.86	12.37	129	61.46	12.18	5.11**
사회	솔자 자 금 수	직 발 정 용	성 성 성 성	165	72.47	10.71	143	65.38	11.15	5.69**
				143	73.67	10.65	126	64.70	10.82	6.84**
				151	73.75	10.68	122	64.24	10.38	7.40**
				163	73.69	10.74	129	65.20	11.48	6.50**

\*\* p < .01

〈표 IV-1〉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솔직, 자발, 긍정,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정서, 신체, 학업, 사회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상·하)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 차이

자아개념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			하			t
				N	M	SD	N	M	SD	
정서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직	성	172	65.05	11.10	128	59.35	9.33	4.70**
				173	66.14	10.32	113	57.97	9.28	6.80**
				173	66.24	10.83	139	59.37	9.12	5.97**
				165	65.55	10.85	140	59.06	9.00	5.61**
신체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직	성	172	68.92	12.00	128	64.23	11.98	3.35**
				173	69.99	10.86	113	62.70	12.13	5.29**
				173	70.73	11.84	139	63.40	11.77	5.45**
				165	69.88	11.27	140	64.18	12.03	4.27**
학업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직	성	172	67.91	13.36	128	60.34	11.58	5.09**
				173	69.00	11.68	113	59.96	12.06	6.31**
				173	68.87	12.19	139	59.83	12.23	6.50**
				165	68.35	12.49	140	60.62	12.00	5.48**
사회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직	성	172	72.24	11.53	128	64.59	10.64	5.88**
				173	73.47	10.55	113	63.93	10.90	7.59**
				173	73.16	11.34	139	64.21	10.53	7.15**
				165	72.64	11.29	140	65.21	10.43	5.92**

\*\*  $p < .01$

〈표 IV-2〉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솔직, 자발, 긍정,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정서, 신체, 학업, 사회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 2)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아동의 자아개념**

### (1)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상·하)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 차이**

자아개념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			하			t
		N	M	SD	N	M	SD	
정서	권 위 지 향	168	60.32	10.15	114	65.81	10.65	4.36**
	불평불만지향	155	59.79	9.17	119	67.16	10.81	6.09**
	불성실성	162	59.88	8.61	134	65.84	10.98	5.23**
	평가지향	186	60.20	8.76	126	65.05	12.05	3.87**
신체	권 위 지 향	168	65.43	11.25	114	70.20	11.71	3.44**
	불평불만지향	155	65.30	11.57	119	69.88	11.88	3.21**
	불성실성	162	64.24	11.41	134	69.72	11.60	4.08**
	평가지향	186	65.35	10.69	126	68.44	13.25	2.18**
학업	권 위 지 향	168	61.87	12.65	114	67.57	11.88	3.81**
	불평불만지향	155	61.32	12.51	119	68.36	12.20	4.67**
	불성실성	162	60.49	11.49	134	68.46	12.51	5.70**
	평가지향	186	61.07	10.75	126	68.17	12.70	5.15**
사회	권 위 지 향	168	67.67	10.82	114	72.61	10.51	3.81**
	불평불만지향	155	66.13	11.07	119	72.38	11.01	4.64**
	불성실성	162	66.07	10.63	134	72.93	9.97	5.68**
	평가지향	186	67.09	10.75	126	71.48	11.06	3.49**

\*\*  $p < .01$

〈표 IV-3〉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따라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권위지향, 불평불만지향, 불성실성, 평가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정서, 신체, 학업, 사회적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상·하)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차이

자아개념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			하			t
		N	M	SD	N	M	SD	
정서	권 위 지 향	148	60.18	10.17	139	64.98	10.67	3.90**
	불평불만지향	162	59.80	9.40	116	66.53	11.79	5.29**
	불성실성	175	60.18	8.92	130	66.37	11.21	5.19**
	평가지향	161	60.11	8.98	112	65.27	12.31	3.79**
신체	권 위 지 향	148	65.19	11.64	139	69.40	11.76	3.05**
	불평불만지향	162	65.52	11.77	116	69.32	12.39	2.59*
	불성실성	175	64.46	11.23	130	69.26	11.85	3.60**
	평가지향	161	65.05	11.24	112	69.24	12.33	2.91**
학업	권 위 지 향	148	63.19	13.25	139	66.64	11.86	2.32*
	불평불만지향	162	61.43	11.17	116	67.36	13.08	4.06**
	불성실성	175	61.24	11.80	130	68.15	13.12	4.82**
	평가지향	161	61.24	11.86	112	67.51	12.45	4.21**
사회	권 위 지 향	148	67.79	12.06	139	71.44	10.90	2.68**
	불평불만지향	162	66.49	10.92	116	71.41	11.54	3.62**
	불성실성	175	66.43	10.62	130	72.70	11.49	4.92**
	평가지향	161	61.24	11.86	112	67.51	12.45	4.21**

\*  $p < .05$     \*\*  $p < .01$

〈표 IV-4〉에서와 같이 **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따라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권위지향, 불평불만지향, 불성실성, 평가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정서, 신체, 학업, 사회적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2.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 1)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아동들이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것과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 (1)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기능적 의사소통의 차이**

〈표 IV-5〉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평균)과 어머니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평균)의 차이**

기능적 의사소통	父 (N=427)		母 (N=427)		t
	M	SD	M	SD	
솔 직 성	16.15	4.24	18.21	3.85	11.01**
자 발 성	16.17	4.56	18.11	4.05	11.38**
긍 정 성	18.49	4.28	19.08	3.81	3.31**
수 용 성	17.63	4.53	18.04	4.22	2.34*

\*  $p < .05$     \*\*  $p < .01$

〈표 IV-5〉에서와 같이 아동들이 **아버지·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모든 영역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아동들은 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더 관계한다.** 의사소통

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기능적으로 즉, 자발성(t=11.38), 솔직성(t=11.01), 긍정성(t=3.31), 수용성(t=2.34)의 형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차이

〈표 IV-6〉 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평균)과 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평균)의 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父 (N=427)		母 (N=427)		t
	M	SD	M	SD	
권 위 지 향	12.55	4.24	13.04	4.36	3.11**
불 평 불 만 지 향	13.26	4.31	13.387	4.42	.65
불 성 실 성	10.73	3.85	10.80	3.65	.58
평 가 지 향	12.07	4.17	13.19	4.15	6.35**

\*\* p<.01

〈표 IV-6〉에서와 같이 아동들이 父·母와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권위지향(t=3.11)과 평가지향(t=6.35)에 있어서 父와의 의사소통과 母와의 의사소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아동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역기능적으로 즉, 권위지향, 평가지향으로 의사소통한다고 할 수 있다.

### 3. 부모의 학력, 성별,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

#### 1) 父·母와의 학력수준과 의사소통 수준 및 아동의 자아개념

##### (1) 父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

父의 학력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에 따른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평균)의 변량분석

의사소통수준	학력	I. 중졸이하(N=112)		II. 고 졸(N=232)		III. 대학 이상(N=83)		F	Scheffe 검 증 (p<.05)
		M	SD	M	SD	M	SD		
솔 직 성		15.52	4.49	16.32	4.02	16.49	4.44	1.72	
자 발 성		15.21	4.87	16.55	4.49	16.39	4.21	3.39*	I < II
긍 정 성		17.71	4.13	18.74	4.32	18.84	4.28	2.52	
수 용 성		17.06	4.26	17.68	4.58	18.23	4.70	1.62	
권 위 지 향		12.57	4.28	12.48	4.33	12.73	3.99	.11	
불 평 불 만		13.73	4.41	12.97	4.22	13.45	4.44	1.26	
불 성 실 성		11.36	4.03	10.55	3.71	10.37	3.94	2.11	
평 가 지 향		12.71	4.29	11.87	4.06	11.78	4.29	1.76	

\* p<.05

〈표 IV-7〉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중에서 자발성만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3.39, p<.05).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아동과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5).

(2)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점수(평균)의 변량분석

자아개념	학력	I. 중졸이하(N=112)		II. 고 졸(N=232)		III. 대학 이상(N=83)		F	Scheffe 검 증 (p<.05)
		M	SD	M	SD	M	SD		
정 서		60.09	10.14	63.10	9.70	63.48	11.76	2.53	
신 체		65.61	11.19	67.63	11.97	67.52	11.11	1.22	
학 업		61.56	12.43	64.75	12.45	67.31	11.52	5.42**	I < III
사 회		66.68	10.92	69.43	11.15	70.61	11.20	3.49*	

\* p<.05      \*\* p<.01

〈표 IV-8〉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F=5.42, p<.01$ ), 사회적( $F=3.49, p<.05$ ) 자아개념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적 자아개념은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중졸 이하와 대학이상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01$ ).

그러나 아동의 정서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자아개념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학업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평균)의 변량분석

의사소통수준	학력		I. 중졸이하(N=187)		II. 고졸(N=201)		III. 대학 이상(N=39)		F	Scheffe 검증(p<.05)
	M	SD	M	SD	M	SD				
솔직성	17.65	3.86	18.64	3.79	18.67	3.88	3.57*	I<II		
자발성	17.33	4.12	18.63	3.90	19.15	3.82	6.85**	I<II=III		
긍정성	18.35	3.95	19.67	3.69	19.49	3.19	6.18**	I<II		
수용성	17.57	4.10	18.32	4.22	18.79	4.56	2.27			
권위지향	13.45	4.58	12.54	4.15	13.56	4.17	2.45			
불평불만	13.60	4.25	13.26	4.53	13.03	4.72	.44			
불성실성	11.13	3.09	10.53	3.74	10.67	5.30	1.35			
평가지향	13.49	3.98	12.98	4.15	12.77	4.87	.95			

\*  $p<.05$     \*\*  $p<.01$

〈표 IV-9〉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수준의 차이는 솔직성( $F=3.57, p<.05$ ), 자발성( $F=6.85, p<.01$ ), 긍정성( $F=6.18, p<.01$ )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솔직성에서는 중졸이하와 고졸, 자발성에서는 중졸이하와 고졸, 그리고 중졸이하와 대학 이상, 긍정성은 중졸이하와 고졸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보면, 母의 학력수준은 기능적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母의 학력수준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두와 기능적 의사소통중 수용성과는 큰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4) 母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母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母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점수(평균)의 변량분석

학력 자아개념	I. 중졸이하 (N=187)		II. 고 졸 (N=201)		III. 대학 이상 (N=39)		F	Scheffe 검 증 ( $p < .05$ )
	M	SD	M	SD	M	SD		
정 서	61.59	10.20	63.18	10.19	63.79	10.99	1.49	
신 체	65.49	11.29	68.59	11.78	66.85	11.49	3.51*	I < II
학 업	62.25	13.04	66.03	11.46	66.44	12.60	5.17**	I < II
사 회	66.84	11.37	70.44	10.55	71.23	11.85	6.07**	I < II

\*  $p < .05$     \*\*  $p < .01$

<표 IV-10>에서와 같이 母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정서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 자아개념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그리고 이들 자아개념을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 자아개념에서 중졸이하와 고졸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

따라서 母의 학력수준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성별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및 자아개념

### (1) 성별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아동의 성에 따라서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성별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수준(평균) 차이

父·母 및 성 별 의 사 소 통 수 준	父와의 의사소통				母와의 의사소통					
	남 (N=220)		여 (N=207)		t	남 (N=220)		여 (N=207)		t
	M	SD	M	SD		M	SD	M	SD	
솔직성	15.78	4.03	16.54	4.43	1.85	17.48	3.80	18.99	3.77	4.11**
자발성	15.90	4.48	16.46	4.64	1.28	17.37	3.94	18.90	4.02	3.97**
긍정성	18.21	4.34	18.79	4.21	1.39	18.72	3.81	19.45	3.78	1.99*
수용성	17.30	4.62	17.97	4.41	1.53	17.78	4.02	18.31	4.40	1.30
권위지향	13.13	4.19	11.94	4.22	2.93**	13.30	4.02	12.75	4.69	1.32
불평불만	14.05	4.24	12.43	4.24	3.92**	13.91	4.39	12.83	4.39	2.54*
불성실성	10.81	3.67	10.64	4.04	.46	11.05	3.62	10.54	3.67	1.44
평가지향	12.97	4.09	11.12	4.06	4.68**	13.82	4.27	12.51	3.90	3.31**

\* p<.05    \*\* p<.01

<표 IV-11>에서와 같이 父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권위지향(t=2.93), 불평불만(t=3.92), 평가지향(t=4.68)에서 남·여간의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母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솔직성(t=4.11), 자발성(t=3.97), 평가지향(t=3.31)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p<.01). 또한 불평불만(t=2.54), 긍정성(t=1.99)에서도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남·여간 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모두다 여자보다 남자 아동들에게서 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기능적·역기능적에서 골고루 남·여간에 차이를 보이면서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아동들에게서 더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고, 불평불만과 평가지향에서는 여자보다 남자 아동들에게서 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여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로 남아들에게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여아들에게는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아동의 성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의 차이

자아개념	성 별	남 (N=220)		여 (N=207)		t
		M	SD	M	SD	
정	서	62.09	9.42	63.02	11.13	.93
신	체	68.34	11.28	65.73	11.83	2.33*
학	업	63.85	11.52	65.01	13.26	.97
사	회	68.38	10.69	69.54	11.65	1.07

\* p<.05

<표 IV-12>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만이 남·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5). 즉,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정서적, 학업적, 사회적 자아개념 형성은 남·여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가족형태와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및 자아개념

#### (1) 가족형태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

가족형태(소가족·대가족)에 따라서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가족형태에 따른 父·母와의 의사소통 수준(평균) 차이

父·母 및 가 족형 태 의 사소 통수 준	父와의 의사소통				t	母와의 의사소통				t
	소가족(N=161)		대가족(N=266)			소가족(N=161)		대가족(N=266)		
	M	SD	M	SD	M	SD	M	SD		
솔직성	16.04	3.99	16.20	4.39	.39	18.12	4.29	18.26	3.57	.38
자발성	15.94	4.49	16.30	4.61	.79	17.76	4.22	18.32	3.93	1.40
긍정성	18.57	4.20	18.44	4.34	.28	19.17	3.94	19.02	3.74	.38
수용성	17.68	54.61	17.59	4.49	.21	18.04	4.40	18.03	4.11	.03
권위지향	13.22	4.50	12.15	4.03	2.53*	13.63	4.44	12.67	4.28	2.22*
불평불만	13.76	4.69	12.96	4.04	1.87	13.92	4.74	13.07	4.19	1.93
불성실성	10.55	3.73	10.83	3.93	.75	10.74	3.90	10.84	3.49	.28
평가지향	12.04	4.07	12.09	4.24	.14	13.25	4.16	13.14	4.14	.27

\* p<.05

<표 IV-13>에서와 같이 가족형태(소가족·대가족)에 따라서 권위지향적 의사소통만을 제외하고는 기능적·역기능적 모두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권위지향적 의사소통에서만이 대가족보다 소가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상황이 보다 많은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형태는 의사소통 유형이나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가족형태(소가족·대가족)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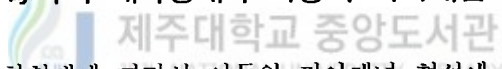
<표 IV-14>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의 차이

자아개념	가족형태	소가족 (N=161)		대가족 (N=226)		t
		M	SD	M	SD	
정	서	62.40	11.01	62.63	9.82	.22
신	체	67.84	12.86	66.61	10.78	1.06
학	업	64.81	11.85	64.17	12.73	.51
사	회	69.17	11.18	68.80	11.18	.34

<표 IV-14>에서와 같이 가족형태(소가족·대가족)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은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형태는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父·母와의 대화형태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의 차이



父·母와의 대화형태에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에 따른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父·母와의 대화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평균)의 변량분석

자아개념	대화형태	I. 父 (N=48)		II. 母 (N=203)		III. 父·母 (N=176)		F	Scheffe 검 증 (p<.05)
		M	SD	M	SD	M	SD		
정	서	62.17	10.78	60.84	9.71	64.60	10.46	6.50**	I<II
신	체	69.42	13.45	64.72	11.24	69.15	11.01	8.22**	I>II, I<III
학	업	64.25	13.58	63.30	11.76	65.74	12.72	1.85	
사	회	69.58	13.65	67.36	10.86	70.58	10.56	4.05*	II<III

\* p<.05      \*\* p<.01

〈표 IV-15〉에서와 같이 父·母와의 대화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정서적(F=6.50), 신체적(F=8.22), 사회적(F=4.05) 자아개념에 있어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정서, 신체, 사회 모두에서 父母와 함께 상의하는 경우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자아개념이 어머니와 함께 상의하는 것 보다 아버지와 상의할 때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적 자아개념은 父母와의 대화형태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父·母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1) 父·母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

##### (1) 부·모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

N=427

자아개념	대화 형태	父와의 의사소통				母와의 의사소통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
정	서	.27**	.36**	.29**	.34**	.28**	.38**	.33**	.35**
신	체	.27**	.31**	.30**	.30**	.24**	.28**	.32**	.27**
학	업	.29**	.32**	.26**	.29**	.30**	.35**	.36**	.31**
사	회	.30**	.34**	.35**	.34**	.32**	.37**	.41**	.33**

\*\* p<.01

〈표 IV-16〉에서와 같이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개념과는 모두 正的 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  
N=427

대화 자아 개념	대화 형태	父와의 의사소통				母와의 의사소통			
		권위	지향	불평	불만	불성	실성	평가	지향
정	서	-.21**	-.31**	-.28**	-.21**	-.22**	-.28**	-.28**	-.24**
신	체	-.14**	-.19**	-.25**	-.13**	-.17**	-.16**	-.20**	-.14**
학	업	-.18**	-.24**	-.30**	-.21**	-.17**	-.22**	-.27**	-.22**
사	회	-.12**	-.20**	-.26**	-.16**	-.14**	-.20**	-.23**	-.17**

\*\* p<.01

〈표 IV-17〉에서와 같이 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는 모두 負的 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父·母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1)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개념의 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IV-18, 표 IV-19>와 같다.

<표 IV-18>    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치	F
정 서	자 발 성	.36	.13	.13	61.63**
	수 용 성	.38	.14	.01	35.87**
신 체	자 발 성	.31	.09	.09	44.37**
	수 용 성	.33	.11	.02	25.78**
학 업	자 발 성	.32	.11	.11	50.03**
	수 용 성	.34	.12	.01	27.24**
사 회	긍 정 성	.35	.12	.12	59.15**
	자 발 성	.37	.14	.02	34.61**

\*\* p<.01

<표 IV-18>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보면,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자발성이 13%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F=61.53), 다음으로 수용성이 자발성의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F=35.87).

신체적 자아개념에는 자발성이 9%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F=44.37), 다음으로 수용성이 자발성의 신체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2%를 더 추가하고 있다(F=25.78).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자발성이 11%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F=50.03), 다음으로 수용성이 자발성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F=27.24).

사회적 자아개념에는 긍정성이 12%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F=59.15), 다음으로 자발성이 긍정성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2%를



더 추가하고 있다(F=34.61).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지 않은 변인들은 의의가 없는 관계로 자동 탈락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 중에서 자발성과 수용성 그리고 긍정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표 IV-19〉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치	F
정 서	자 발 성	.38	.15	.15	73.04**
	수 용 성	.41	.16	.01	41.67**
신 체	긍 정 성	.32	.10	.10	48.50**
	자 발 성	.33	.11	.01	25.78**
학 업	긍 정 성	.36	.13	.13	64.48**
	자 발 성	.39	.16	.03	39.05**
사 회	긍 정 성	.41	.17	.17	87.13**
	자 발 성	.44	.20	.03	51.52**

\*\* p<.01

〈표 IV-19〉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보면,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자발성이 15%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F=73.04), 다음으로 수용성이 자발성의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F=41.67).

신체적 자아개념에는 긍정성이 10%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F=48.50), 다음으로 자발성이 긍정성의 신체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F=25.78).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긍정성이 13%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F=87.13), 다음으로 자발성이 긍정성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3%를

더 추가하고 있다( $F = 39.05$ ).

사회적 자아개념에는 긍정성이 17%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 $F = 87.13$ ), 다음으로 자발성이 긍정성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2%를 더 추가하고 있다( $F = 51.52$ ).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지 않은 변인들은 의의가 없는 관계로 자동 탈락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 중에서 긍정성과 자발성 그리고 수용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볼 수 있다.

(2)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 보면, 구체적으로 4개의 변인 즉, 권위지향·불평불만·불성실성·평가지향이 자아개념 즉, 정서적·신체적·학업적·사회적 자아개념에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개념의 각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IV-20, 표 IV-21>과 같다.

<표 IV-20> 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치	F
정 서	불평불만	.31	.10	.10	46.78**
	불성실성	.35	.12	.02	28.67**
신체	불성실성	.25	.06	.06	28.70**
학 업	불성실성	.30	.09	.09	41.13**
	불평불만	.31	.10	.01	22.96**
사회	불성실성	.26	.07	.07	29.76**

\*\*  $p < .01$

〈표 IV-20〉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면,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불평불만이 10%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F=46.78), 다음으로 불성실성이 불평불만의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2%를 더 추가하고 있다(F=28.67).

신체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 만이 6%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F=28.70).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이 9%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F=41.13), 다음으로 불평불만이 불성실성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F=22.96).

사회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 만이 7%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F=29.76).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지 않은 변인들은 의의가 없는 관계로 자동 탈락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불성실성과 불평불만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치	F
정 서	불평불만	.28	.08	.08	37.53**
	불성실성	.32	.10	.01	24.71**
신 체	불성실성	.20	.04	.04	18.24**
	권위지향	.22	.05	.01	11.15**
학 업	불성실성	.27	.07	.07	33.82**
	불평불만	.29	.08	.01	19.05**
사 회	불성실성	.23	.05	.05	24.15**
	불평불만	.25	.06	.01	14.38**

\*\* p < .01

<표 IV-21>에서와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면,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불평불만이 8%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 $F=37.53$ ), 다음으로 불성실성이 불평불만의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2%를 더 추가하고 있다 ( $F=24.71$ ).

신체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이 4%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 $F=18.24$ ), 다음으로 권위지향이 불성실성의 신체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 ( $F=11.15$ ).

학업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이 7%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 $F=33.82$ ), 다음으로 불평불만이 불성실성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 ( $F=19.05$ ).

사회적 자아개념에는 불성실성이 5%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 $F=24.15$ ), 다음으로 불평불만이 불성실성의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한 예언력에 약 1%를 더 추가하고 있다 ( $F=14.38$ ).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지 않은 변인들은 의의가 없는 관계로 자동 탈락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들 중에서 불성실성과 불평불만 그리고 권위지향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볼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가족체제 내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父와 자녀간, 母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차이는 어떠한가?
- 3) 부모의 학력, 아동의 성별, 가족형태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 4) 父·母와의 대화 형태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 5) 父·母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 시내 4개 국민학교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그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427부(남 220명, 여 207명)만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기능적 의사소통에는 솔직한 의사소통·자발적인 의사소통·긍정적인 의사소통·수용적인 의사소통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에는 권위지향적 의사소통·불평 불만지향적 의사소통·불성실 지향적 의사소통·평가 지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아개념에는 정서적·신체적·학업적·사회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서로의 영향관계를 분석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방법으로는 M, SD, t검증, Scheffe검증 그리고 상호상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 상·하간에 아동의 자아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둘째, 아동들이 아버지-어머니와의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권위지향( $t = 3.11$ ), 평가지향( $t = 6.35$ )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1$ ). 따라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역기능적으로 즉 권위지향, 평가지향으로 의사소통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자발성( $F = 3.39$ ,  $p < .05$ )을 제외하고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아개념( $F = 5.42$ ,  $p < .01$ )과 사회적 자아개념( $F = 3.49$ ,  $p < .05$ )에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는 솔직성( $F = 3.57$ ,  $p < .05$ ), 자발성( $F = 6.85$ ,  $p < .01$ ), 긍정성( $F = 6.18$ ,  $p < .01$ )에서 유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정서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신체적( $F = 3.51$ ,  $p < .05$ ), 학업적( $F = 5.17$ ,  $p < .01$ ), 사회적( $F = 6.07$ ,  $p < .01$ ) 자아개념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성에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서는 권위지향( $t = 2.93$ ), 불평불만( $t = 3.92$ ), 평가지향( $t = 4.68$ )에서 남·여간의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솔직성( $t = 4.11$ ), 자발성( $t = 3.97$ ), 긍정성( $t = 1.99$ ), 불평불만( $t = 2.54$ ), 평가지향( $t = 3.31$ )에서 남·여간

의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1$ ).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만이 남·여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33, p < .05$ ).

가족형태(소가족, 대가족)에 따른 父와 母와의 의사소통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서는 권위지향적 의사소통만이 의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t = 2.22, p < .05$ ).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네째, 父·母와 대화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정서적( $F = 6.50$ ), 신체적( $F = 8.22$ ), 사회적( $F = 4.05$ ) 자아개념에 있어서 의의있는 차이가 있으며( $p < .01$ ), 또 이들 자아개념을 평균의 사후개별비교(Scheffe검증)한 결과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모두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있었다( $p < .05$ ).

다섯째,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의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상호상관관계에서는 모두 正的 상관계수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 < .01$ ). 그리고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개념과는 負的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p < .01$ ).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업적 자아개념에서는 자발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 < .01$ ), 사회적 자아개념에서는 긍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 < .01$ ).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정서적 자아개념에는 자발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p < .01$ ),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 자아개념에서는 긍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 < .01$ ).

父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정서적 자아개념에서 불평 불만이, 신체적·학업적·사회적 자아개념에서는 불성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 < .01$ ). 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정서적 자아개념에서 불평 불만이, 신체적·학업적·사회적 자아개념에서는 불성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p < .01$ )

## 2. 결 론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기질적 요인, 인간관계 요인, 외상적 경험의 요인등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父母-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본 연구는 여러가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 상·하간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모든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父와 母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동들은 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父보다 母와 더 관계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도 父보다 母와 역기능적으로 권위 지향, 평가지향으로 의사소통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父의 학력수준이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자아개념 형성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母의 학력수준은 아동의 솔직성, 자발성, 긍정성 의사소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父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여자아동보다 남자 아동들에게서 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고, 母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 아동들에게서 더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남자 아동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아동에게는 역기능적, 여자아동들에게는 기능적 의사 소



통으로 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의 차이는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만이 남녀간의 의의있게 나타났으며 남자아동들의 여자아동들 보다 신체적 자아개념형성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이나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권위지향적 의사소통에서만 대가족보다 소가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상황이 보다 많은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네째, 부모의 대화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체적 자아개념에는父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학업적 자아개념은 父·母와의 대화형태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섯째, 父·母와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父·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이 자아개념과는 모두 正的 상관관계를 보여 父와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父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 자발성, 긍정성, 수용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나타났고, 母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 긍정성과 자발성 그리고 수용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負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父·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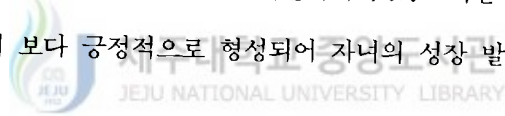
父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 불평불만과 불성실성이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이며 母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중에서는 불평불만과 불성실성 그리고 권위지향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주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가족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분명한 의사소통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가족체제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더구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전달 형태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대화 형태내지는 의사전달 형태는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 자녀간의 의사전달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따른 기법과 더불어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점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에 더 근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부모-자녀간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 의사소통이 서로에게 미치는 좌절감, 단절감 등 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분석도 계속할 필요성이 보이며, 이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대화모형들이 개발되어 부모교육을 통해 보급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자아개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參 考 文 獻

- 고영복(1974), 「현대사회 심리학」, 법문사
- 고정희(1986), “어머니 대화형태와 아동의 성적 및 사회적 인지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진현(1988), “어머니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기정 역(1987),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문음사.
-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만두 역(1977),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성기(1982), “성격특성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숙(1988),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개념간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자 역(1984),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중앙서적
- (1984), 「적응심리」, 정민사.
- 김재은(1981), 「한국가족의 심리」, 이대 출판부.
-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화엽(1972), “부모의 언어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희자(1989), “아동의 자아개념과 주요 타인의 인정”,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인숙(1987), “가족의 의사전달 형태가 청년기 자녀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근진(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송성자(1985),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 윤대림(1966),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 출판부.
- 이광규(1981),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 이광제외 3인(1975), 「메스컴과 사회」, 삼영사.
- 이동식(1981),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일지사.
- 이부영(1983), 「한국인의 윤리관(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현자(1983), “체벌이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형득(1982),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중앙정성출판부.
- (1989),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 외(1988), 「가족치료 입문」, 형설출판사.
- , 설기문(1989), 「조력기술 훈련의 실제」, 형설출판사.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희선(1988), “아동의 자아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성민(1970), “학업성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명희(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 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 (1968), 「인간과 교육」, 배영사.
- 정한택(1982), 「한국인」, 박영사.
- 조혜정(1983), “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차배근(1983), 「커뮤니케이션 개론(상)」, 세명사.
- 차재호외 5인(1983), 「한국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최경숙(1985), 「아동심리학」, 민음사.
- 최재규(1972),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간의 상관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훈(1972),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 Bateson. G, Jackson. D, Haley. J, Weakland. J(1956), “Towards a Theory of Schizophrenia”, Palo Alto, California : Behavior Science.
- Bernstein. B. A (1972), “Socio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some refernece to educability”, Directions in socildinguistics(eds.)
- Gumperz, J, Hymes Dell, Holt, Rinehert and Winston Inc.

- Boshier, R. (1968), "self esteemm and first names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 Chaffee, steven H(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 in Jack Dennis, Socialization to politics, John Wiley and Sons, Inc.
- Click, Ira D. and kessler, David R. (1980) "Marital and Family Therapy" N. Y : Grue and Stratton, Inc.
- Cooley, C. H. (1956), "Social Organization" Glenoco, Illinois, Free pres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 Davidson, H. H, & Long, G(1960),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theacher feelings towards them related to self perception, school achievment and behaviour. Journal of Exp. Edus.
- Diggory, J. C(1966), Self-evaluation : Concepts and studies. N. Y : Wiley.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 Y : Norton.
- Felker, D. W, & Milhollan, F. (1970), Acquisition of cognitive respones under different patterns of verbal reward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 , & Stanwyck, D. J(1971), "General self-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s after an academic task. psychological Reports.
- , & Thomas, S. B. (1971), Self-initiated verbal rein forcement and positive self-concept child Development.

- Fitts, W (1972), "The Self-Concept and Psychopathology", Nashville, Tenn. :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 Gordon, T (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Y, New American  
Library.
- Haley, Jay (1976), Problem Solving Therapy, New York : Jossey-Bass  
Publishers.
- (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Inc.
- (1980), Leaving Home : The Theory of Disturbed Young people.
- Hurlock, E, B (1974), "Personality Development : N. Y, McGraw Hill.
- Jackson, D (1963), Communication, Family and Marriage.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Janzen Curtis and Harris Oliver (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llinois : F. E. Peacock Publishers, Inc.
- Jersild, A. T. (1963),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2nd. ed) N. Y :  
Macmillan.
- Kohlbery, L, Yeager, J, & Hjertholm, E (1968), Private speech : Four Studies  
and a review of theories child development.
- Marston, A, R (1965), Self-reinforcement : The relevance of a concept in  
analogue research to psychotherapy. Psychotherap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 McCandless, B. R. (1967), Children : Behavior and development, (2nd ed)  
chicago : Holt.
- Myers, Gail E. and Myers Michele T. (1973)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McGraw-Hill, Inc.
- Okun, Barbara F. and Rappaport, Louis J, working with Families,  
Belmont : Wadsworth Inc.
- Piaget, J. (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N.Y : Harcourt,  
Brace.
- Piers, E. V. & Harris, D (1964), "Age and Other Correlates of Self-  
conceptions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Dsychology. Vol. 55.
- Raimy, V. C. (1948), Self-reference in couseling interview. Journal of  
Consultiong psychology.
- Richard, S. Lazaru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 Y : McGraw  
Hill Book Compa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Mifflin.
- Satir (1972), Peope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chramm, W. (1971), Process and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Urbaba,  
University of Illinois.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J. C (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 terpretations. Review of Edcational  
Research.



Thomas Edwin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 Y : The Free press.

Watzlawick, Bavelas, J. B, and Jackson, D (1967), *Pragmatic of Human Communication*, Palo Altio, California : Mental Research Institute.

Watzlawick, Paul, et al (1974), *Change : Princlc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 Y : W. W Norton Co.

Wright, C (1975), *Mass Communication*, N. Y. Random House.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 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

〈Summary〉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on Children's Self-concept

JUNG, HEE-MA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This thesis aims at elucidat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communication patterns in the family and at throwing some light upon how children's self-concept is influenced by the communication pattern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method used here is the one of questionnaire, in which two kinds of questionnaires were produc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model of various reliable scholars; one for the purpose of survey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surveying the formation of children's self-concept. The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27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children of both sexes attending the 6th grade class for their response and the researcher's statistical treatment.

The result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tion of children's self-concept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levels of functional communication in the family : the higher level of functional communication means the more positiv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the higher level of disfunctional communication means the less positive self-concept of children.

2. Children were found to keep more contacts with their mothers than with their fathers both in functional and di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3. Children's communication process was found to be more influenced by the level of their mother's education than by that of their father's education, and the formation of children's self-concept was found to be much influenced by the level of their parent's education.

4. Significant difference of self-concept between both sexes of children was found to exist only in the formation of physical self-concept, and the family form was found to mak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tion of children's self-concept.

5. As for the variables of functional communication, children's self-concept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traits of spontaneity, positivity, and receptivity on the part of their father, and those of positivity, spontaneity, and receptivity on the part of their mother. As for the variable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children's self-concept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traits of disaffection and disloyalty on the part of their father, and those of disaffection, disloyalty, and authoritativeness on the part of their mother.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can be pointed that 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tends to serve as a way of keeping on the children's effective and positive communication process with the family members, and tha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must be improved towards the functional communication process by the help of family members.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I부와 II부로 되어 있습니다. I부에서는 여러분과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지니는 태도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I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신과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정답이나 틀림답이 없습니다.

다음의 글을 하나씩 잘 읽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다른사람에게 알리거나 또는 성적과 관련 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제 주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교 육 행 정 연 구 실

I.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된 ( )안에 ○표 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

2. 여러분의 가족수는?

- (1) 2명( ) (2) 3명( ) (3) 4명( )  
(4) 5명( ) (5) 6명이상( )

3. 여러분의 출생순위는?

- (1) 첫째( ) (2) 중간( ) (3) 막내( ) (4) 독자(외동)( )

4. 아버지의 학력은?

- (1) 국민학교 졸업( ) (2) 중학교 중퇴 및 졸업( )  
(3)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 (4) 대학교 중퇴 및 졸업( )  
(5) 대학원 졸업이상( )

5. 어머니의 학력은?

- (1) 국민학교 졸업( ) (2) 중학교 중퇴 및 졸업( )  
(3)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 (4) 대학교 중퇴 및 졸업( )  
(5) 대학원 졸업이상( )

Ⅱ.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대화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잘 읽고 보기처럼 부모님과 대화에서 느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따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각각 ○표 해 주십시오.

(보기)

번 호	문 항	구 분	매우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5)	(4)	(3)	(2)	(1)
1	나는 어려운 일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	아버지		○			
		어머니				○	



- \*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5의 란에 ○표
- \*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4의 란에 ○표
- \* “보통이다”라고 생각되면 3의 란에 ○표
- \*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2의 란에 ○표
- \*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1의 란에 ○표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구 분	매우 그렇 다 (5)	약간 그렇 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 지않 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1	나는 어려운 일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2	부모님께서 잘못하실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솔직히 사과를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3	나는 부모님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꺼리낌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아버지					
		어머니					
4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후 마음이 후련한 느낌이 든다.	아버지					
		어머니					
5	부모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6	부모님과 나는 화제거리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야기한다.	아버지					
		어머니					
7	나는 부모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아버지					
		어머니					
8	나는 새로운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9	나는 학교나 집안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께 먼저 말씀 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10	나는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 한다.	아버지					
		어머니					



번호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4)	보통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2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3	부모님은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4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	아버지					
		어머니					
15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7	부모님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8	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19	부모님은 내 의견이 못마땅 하시더라도 끝까지 귀담아 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20	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번 호	문 항	구 분	매우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5)	(4)	(3)	(2)	(1)
21	부모님은 부모님 의견에 무조건 따 르기를 요구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2	부모님은 나에 관한 일도 내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3	부모님은 무조건 자기 의견이 옳다 고 고집을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4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5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나에 게 강제로라도 시키신다.	아버지					
		어머니					
26	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버지					
		어머니					
27	나는 부모님과 불만이 생겼을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아버지					
		어머니					
28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9	부모님은 칭찬보다 야단을 잘 치신 다.	아버지					
		어머니					
30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였을 때 곧 화를 내신다.	아버지					
		어머니					

번 호	문 항	구 분	매우 그렇 다 (5)	약간 그렇 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 지않 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31	부모님은 나의 말을 무시한다.	아버지					
		어머니					
32	부모님은 생각없이 되는 대로 말씀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33	내가 부모님과 무슨 일을 의논하려 하면 상대해 주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34	내가 부모님께 무슨 일에 대해서 물어 보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35	부모님은 나와 약속한 것을 잊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다.	아버지					
		어머니					
36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37	부모님은 내가 하는 말마다 이유를 잘 따지신다.	아버지					
		어머니					
38	부모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말씀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39	부모님은 나에게 나무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40	부모님은 나의 행동이나 성적을 곧잘 비판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Ⅲ.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옳고 틀린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번 호	문 항	매우 그렇 다 (5)	약간 그렇 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 지않 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1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2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3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4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					
5	나는 다정한 사람이다.					
6	나는 늘 기쁜 표정을 지닌다.					
7	나는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8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9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10	나는 형제 자매를 좋아 하는 편이다.					
11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나쁜 생각을 한다.					
13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탄다.					
14	나는 무서움을 잘 탄다.					
15	나는 집에 있는 것이 괴롭다.					
16	나는 학교에서 시험치는 날은 걱정이 된다.					
17	나는 슬퍼질 때가 있다.					
18	선생님이 나를 부르면 신경이 곤두선다.					
19	나는 말썽꾸러기이다.					
20	나는 화를 잘 낸다.					

번 호	문 항	매우 그렇 다 (5)	약간 그렇 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 지않 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21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만족하고 있다.					
22	나의 몸은 건강하다.					
23	나는 운동이나 게임을 잘 한다.					
24	나는 나의 체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					
26	나는 힘이 센 편이다.					
27	내 키는 너무 큰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다.					
28	나의 신체중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29	나의 용모는 매력이 있는 편이다.					
30	나는 항상 말쑥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31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32	운동과 게임을 할 때 나는 운동을 하기 보다 지켜 보는 편이다.					
33	나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기분이다.					
34	나는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으면 한다.					
35	나는 잠을 잘 못잔다.					
36	나는 이유없이 피곤하고 잘 아프다.					
37	나는 나의 모습이 어색하다고 느낀다.					
38	나는 나의 외모가 마음에 걸린다.					
39	나는 운동이나 게임을 잘 못한다.					
40	나는 매력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4)	보통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41	나는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있다.					
42	나는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 리더가 잘된다.					
43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44	나는 무엇이든지 쉽게 배운다.					
45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한다.					
46	나는 아는 것이 많은 편이다.					
47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48	나는 모든 것을 잘 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받는다.					
49	친구들은 나를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50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51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52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다.					
53	나는 공부를 못해 창피할 때가 많다.					
54	나는 배운 것을 알지 못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곧잘 듣는다.					
55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놀이나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신다.					
56	부모님은 나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신다.					
57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편이다.					
58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59	나는 배운 것을 잘 잊어 버린다.					
60	나는 대체로 어리석은 편이다.					

번 호	문 항	매우 그렇 다 (5)	약간 그렇 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 지않 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61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					
62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낸다.					
63	나의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64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65	나는 친구가 많다.					
66	나는 학교에서 행실이 좋은 편이다.					
67	나는 학교에서 꽤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68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69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수월하다.					
7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71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 한다.					
72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7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지 못하다.					
74	학급친구들이 나를 놀린다.					
75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76	나는 인기가 없다.					
77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78	나는 여럿이 일하기 보다 혼자 일하기를 좋아 한다.					
79	나는 행실이 좋지 못하다.					
80	나는 학교가 싫다.					